‘관광 진흥’ 명목, 선교기지 세계유산 등재 안된다

특별기고

7월 14일에 경남 창원시 진해구 웅천동의 ‘세스페데스공원’에 다녀왔다. 2019년 2월 8일에 이어 두 번째인데, 처음 갔을 때 SNS계정에 “이게 정신 제대로 박힌 인간들이 할 짓인가”라고 썼던 기억이 난다.

그레고리오 데 세스페데스(Gregorio de Cespedes)는 스페인 출신 예수회 신부로, 임진왜란 당시인 1593년 12월 말 침략군이 주둔하고 있던 웅천왜성에서 1년 정도 머물었던 인물이다. 그가 오게 된 배경에는 일본군의 주요 지휘관 셋 중 한 명인 천주교도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가 있었다. 그의 부대원들은 모두 천주교도로 이루어져 있었고 전투에 나설 때에 항상 십자가와 예수회 문장(紋章)이 새겨진 깃발을 앞세웠다. 세스페데스는 웅천왜성에 머무는 동안 일본군 교도들을 위해 미사를 진행하고 세례를 주는 등 침략자 왜군의 종군신부로 복무했다.

천주교 마산교구에서는 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주최로 2009년부터 거의 매년 웅천왜성에서 산상미사를 봉헌하며 그를 한국 천주교 최초 사목자로 부각시켜왔고, 창원시는 수억원의 시민 혈세를 들여 현재와 같은 공원을 조성했다. 2016년 2월에 열린 공원 개장 행사에는 스페인과 중남미의 천주교 신도 비중이 높은 국가의 대사들과 스페인의 세스페데스 고향 사람들을 초청하기도 했다.

세스페데스 공원 조성에는 심지어 정의구현사제단 등 천주교계 일부에서 “임진왜란의 치욕은 기억하지 않고 단순히 왜군을 따라 온 서양인 신부 1명을 기념하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반대했지만, 마산교구에서는 “어두운 전란 속에 하느님의 손길이 세스페데스를 통해 섬광처럼 당시 조선 땅에 슬쩍 지나갔다고 볼 수 있다”는 억지 논리를 내세우며 창원시가 공원을 조성하도록 압박했다. 포르투갈에서 세스페데스 관련 자료를 통해 ‘세스페데스가 임진왜란의 참상을 유럽에 알렸음’을 확인했다며 “그는 군종신부가 아니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었다. 창원시에서는 이 주장을 받아 “16세기에는 지금과 같은 종군신부라는 개념이 없었다”는 논리를 내세워 이 사업을 강행했다.

광주 등 선교기지 세계유산化
선교기지 등재 협의회 구성
‘제국주의 선교’ 악명 지우기
‘기독 표심’ 갈급 정치인들
등재 약속 공약 난무 우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조선을 침략한 왜군 부대에 장기간 머물면서 그 부대원들을 위해 미사를 집행하고 세례를 주었던 사람이 ‘종군신부’가 아니면 ‘평화 전도사’였단 말인가. 사정을 제대로 알게 되면 내가 “이게 정신 제대로 박힌 인간들이 할 짓인가”라고 했던 게, 흥분해서 나온 지나친 말이 결코 아님을 누구든 알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이런 일이 창원 한 군데에서 단 한 차례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데에 있다. 중앙정부와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를 가릴 것 없이 ‘민족의 역사’와 자부심 등은 아예 팽개친 채 ‘관광 진흥’을 이유로 ‘정신 나간 짓’을 경쟁적으로 하고 있다. 충북 제천시에서는 “프랑스 군대를 보내 조선 정부를 무너뜨려 달라”는 비밀 편지를 써서 보냈다가 전달 과정에서 발각돼 처형당한 황사영이 숨어있던 배론에서 박달재까지 7km를 순례코스로 조성하면서 혈세 53억원을 쓰는가 하면, 충남 당진에서는 조선 고종의 할아버지인 남연군 묘소 도굴범 오페르트가 배에서 내린 곳을 ‘최초의 서양음악 전래지’로 선포하고 기념행사를 열기도 했다.



6월 20일 열린 ‘선교기지 세계유산 등재 지방정부협의회’ 창립총회 및 출범식. 광주 남구, 대구 중구, 충북 청주시, 충남 공주시, 전북 전주시 · 김제시, 전남 목포시 · 순천시 등 8개 지자체는 지역 내 선교기지들의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할 예정이다. 사진 출처=광주 남구청 배포 보도자료

그런데 최근 세스페데스공원 조성이나 황사영 순례길 조성 등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드러나 걱정스럽다. 지난 6월 20일 ‘광주 남구·대구 중구·충북 청주시·충남 공주시·전북 전주시와 김제시·전남 목포시와 순천시’가 ‘선교기지 세계유산 등재 지방정부협의회’를 공식 발족했다는 것이다. 이들이 내세우는 사업 추진 근거에는 ‘근대 개신교 선교기지’가 “한국의 근대화 추진의 원동력이 된 근대식 교육·의료 기술·건축 등의 전래 과정을 잘 보여주는 문화유산”이라고 한 국가유산청의 보고서가 있다.

그러나 세계역사를 폭 넓고 깊게 공부하거나 ‘동서고금의 역사’를 성찰하며 자신의 세계관·역사관을 세운 사람이라면, 과거 제국주의 시절 기독교(천주교와 개신교 모두)와 제국주의 국가들이 힘을 합해서 어떤 악행을 어떻게 저질렀는지 알고 있다. 아메리카 대륙·아프리카와 아시아를 가릴 것 없이 제국주의 군대와 함께, 때로는 군대보다 앞서 기독교 선교사가 들어가 침략의 기반을 닦았다. 그 과정에서 그 지역 선주민들과 갈등이 불거지면, 제국주의 세력은 어느 한 나라도 예외 없이 ‘자국민 보호’를 이유로 내세워 침략군을 보내 식민지로 삼아 수탈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는 이런 속담이 널리 퍼져있었다. “백인들이 처음 올 적에 그들 손에는 기독교 성서가 있었고 우리에게는 땅이 있었다. 이제 우리 손에는 기독교 성서가 있지만, 저들에게는 땅이 있다.”

결국 식민지 확장과 수탈에 나섰던 제국주의 세력과 기독교는 일심동체(一心同體)였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기독교, 특히 개신교가 이 땅에 처음 들어와 세력을 확장해가는 과정에서 학교와 병원 등을 많이 세워 기여한 바가 크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앞에서 예로 든 아프리카 속담이 말해주듯이, 이런 사업의 주 목적은 한국인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그들의 선교에 유용한 수단으로 삼았을 뿐이라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된다.

심하게 말하면, 오늘날에도 브라질 아마존 밀림 깊은 곳에 남아 문명세계와 접촉을 피하고 있는 선주민들이 사는 지역에 설탕 포대 등 생필품을 매달아놓아 그들을 유인하다가 그들이 이런 물건에 익숙해지면 독약을 섞어서 몰살시키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과 그 기본 바탕이 다르지 않다.

‘선교기지 세계유산 등재 지방정부협의회’와 그 배경에 있는 일부 기독교 세력의 논리대로라면, 아마존 밀림 선주민들을 유혹하는 데에 악용한 설탕 포대 등도 훗날 ‘세계유산으로 등재하자’는 운동이 없으리라고 장담할 수 없을 것이다.

명년 2026년에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원 선거 그리고 3년 뒤인 2028년에 국회의원 총선거를 치르게 된다. 특정 정당이나 정치 성향과는 전혀 관계없이, 거의 모든 정당과 후보자들이 기독교도들의 단결된 표를 얻으려고 미친 듯이 찾아 헤매면서, 유네스코 위원회에서 통과 가능성이 없을지라도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겠다”는 정치인들이 쏟아져 나올까봐 걱정이다.



이병두 종교평화연구원장

사적 추모 선교사 묘역이 세계유산 가능한가

‘기독교 선교기지’ 살펴보니

지난 6월 20일 광주 남구, 대구 중구, 충북 청주시, 충남 공주시, 전북 전주시·김제시, 전남 목포시·순천시는 창립총회 및 출범식을 열고 ‘선교기지 세계유산 등재 지방정부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공식 발족했다.

협의회는 각 지역별로 산재된 기독교 교회, 병원 학교 등을 ‘기독교 선교기지’로 규정하고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키로 했다. 지자체들이 팔을 걷고 적극적으로 선교기지의 세계유산 등재에 뛰어든 것은 ‘지역 관광 진흥’의 목적이 크다.

실제, 협의회 초대 회장으로 선출된 김병내 광주 남구청장은 배포된 보도자료를 통해 “아시아권은 물론 서양 사람들이 대한민국으로 성지순례를 오도록 선교기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자체가 나서 기독교 선교 성지순례 상품을 개발하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기독교의 전파가 한국 근대화의 동력이 됐다는 대중적 인식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협의회가 밝힌 8개 선교기지 유산 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 지역의 선교기지는 교회와 학교, 병원을 비롯해 선교사 사택, 묘역 등으로 구성돼 있다.

병원, 학교, 교당 등 중심
선교사 사택, 묘역도 포함
묘역, 개인 추모 공간일 뿐
‘OUV’ 기준 충족 의문점
‘제국주의 선교’ 비판 여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서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이하 OUV)’ 10개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기독교계는 이 중 2번 기준 ‘인간의 중요한 교류’와 3번 기준 ‘문화·전통, 문명의 독보성’에 부합한다고 보고 있다.

선교사들이 전한 영어·서양의학 등은 조선사회에 일정 부분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나, 이는 ‘제국주의 선교’라는 양면성도 존재한다. 또한 선교사 개인을 추모하는 묘역들이 OUV 기준에 부합하는지도 따져봐야 할 문제다. 근대 제국주의적 역학 관계 등이 일체 고려되지 않은 채 선교사 묘역을 포함한 선교기지의 세계유산 등재가 현실화 되면 ‘선교사=근대 문화 개척자’로 인식될 공산이 크다.

실제 개신교계의 선행 연구에서조차 서구 문명화와 관련된 초기 한국 선교의 양면성과 오리엔탈리즘에 대한 비판들은 상당 부분 존재한다. 특히 미국 선교사들은 조선 왕실과 조정의 고문 역할을 하며 구한말 조선의 정치와 외교에 관여했다. 이는 “기독교에 대한 호감에서가 아니라 미국이 가진 힘에 대한 존경(이향순)” 때문에 가능했다.

이향순 박사는 ‘미국 선교사들의 오리엔탈리즘과 오리엔탈리즘과 제국주의적 확장’에서 “기독교의 선교는 제국주의적 확장 내지 침략에 맥이 닿아있다. 선교사들이 기독교화를 내세웠다면 식민주의자들은 문명화를 외쳤다”며 “기독교 선교는 제국주의적 확장과 동시적으로 일어났을 뿐 아니라 서구 열강의 제국주의적 침략을 정당화하는데 기여했다”고 지적했다.

신중일 기자



서양 철학자와 동양 승려의 만남

피터 싱어, 불교와 만나다

서로 다른 전통과 언어, 문화적 배경을 가진 두 사상가가 세계가 당면한 다양한 사회문제와 윤리문제에 대해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비전을 공유한다.

피터 싱어 · 스자오후이 지음, 정환희 옮김/신국판/284쪽/값 20,000원

생전예수재 여법하게 지내기!

예수재의범

『예수시왕생칠재의찬요』, 『석문의범』, 『요집』, 『수생경』, 『시왕경』, 『영산대회작법절차』, 『오종범음집』 등 각종 의식문을 참고하여 정리한 생전예수재 의식 절차 및 의식문!

편집 해사/사륙배판/양장/276쪽/값 25,000원

간단하고 직접적인 불교명상 안내서

통찰의 체험

현대 명상 지침서 가운데 가장 쉽게 읽을 수 있는 최고의 책이다. 수십 년 전에 출간되었지만 명상을 배우는 사람에게 여전히 신선하고 살아 있는 안내서 역할을 한다.

조셉 골드스타인 지음, 이재석 옮김/신국판/248쪽/값 18,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